

광주교대 교수 '짝퉁 박사' 파문

검찰 적발, 비 인가 외국학위 제출…문제 교수에 논문대필 부교수도

대학 측, 직위해제·징계 수위 곧 결정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짝퉁 학위'를 이용해 광주교대 교수로 채용된 30대와 문제 교수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부교수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학 측은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대로 당사자들을 직위해제하고 형이 확정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짝퉁 학위'로 교수 임용=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휴혁상)는 6일 정규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학위를 제출해 교수로 채용된 광주교대 전임강사 흥모(3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흥모는 국내에서 정규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령 괌 소재 'AIU'(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정식 교육과정을 거쳐 학위를 받은 것처럼 박사학위증과 성적증명서 등 위증서류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취득한 뒤 2005년 11월 광주교대 전임강사 임용심사 증빙자료로 제출한 혐의다. 흥모는 이 과정에서 교수채용 심사위원이었던 모 교수에게 1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흥씨는 'AIU' 재학 중 괌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고, 졸업 직전 사이판으로 출국해 4일간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흥씨의 논문을 심사한 것으로 돼 있는 5명 중 4명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었다. 지도교수 정도씨도 국내 대학 아동복지학과 조교수로,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논문 인준지'에 서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교수는 논문 대필=검찰은 흥씨에게 논문을 대필해 한 뒤 학술지에 본인 이름으로 게재한 같은 과 부교수 김모(4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 당시 시간강사였던 흥씨에게 '논문을 대필해 달라'고 부탁한 뒤 같은 해 2월 국내 한 학회에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해당 논문을 제출해 석 달 뒤 학술지에 게재되게 한 혐의다.

◇교수 채용 둘러싼 의혹 증폭=AIU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한 사람은 41명이며 이 중 대학 교수로 채용된 사람은 충남 천안 남서울대 박모 교수,

경기도 화성 협성대의 김모 교수 등 3명이다. 국립대는 광주교대가 유일하다.

광주교대의 경우 교원공채위원회 구성→심사→교원공채관리위원회 2배수 추천→총장 직격자 결정→교제 관리위원회 이의 여부 확인→인사위원회 동의 등 임용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심사과정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법정자격 여부는 물론 전공적 부심사·연구실적심사·여학능력·교

미국령 괌에 설립 설립자 사기 구속

가위원회(CHEA)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학위를 취득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설립자 박씨가 2005년 미 당국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후 학생 모집이 사실상 중단됐고 학교도 지난 4월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AIU에서 박사·학사학위를 받은 6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

건한 바 있다.

수능력 등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응모자는 학력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흥씨에 대한 신규 임용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완벽하게 막혔다. 이 때문에 자격미 달인 흥씨 임용에 대해 내부 또는 관련 학계의 실세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구속 中企대표에 수뢰 의혹

순천지청, 정황 포착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광주지검 L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근무 시절인 2005~2006년 사이 여수 산단 내 G산업 대표 김모(여·43·구속)씨로부터 '해외연수 장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김씨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L검사는 고가의 돌침대를 제 공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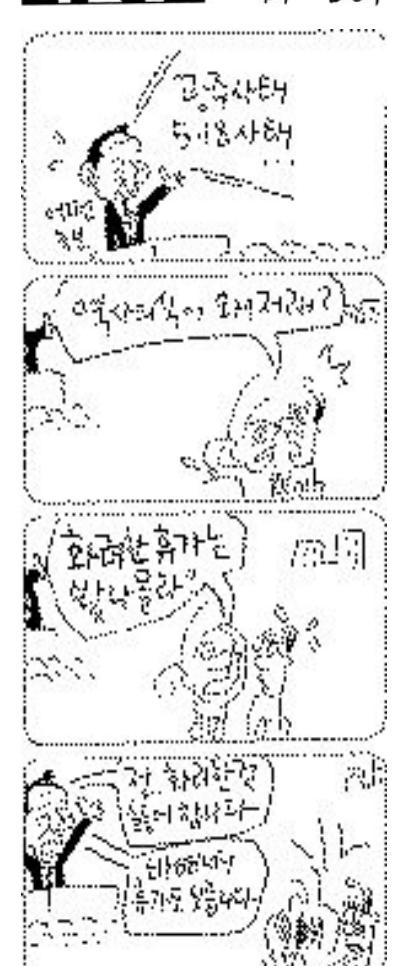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 검사의 어머니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비자금 장부에 적혀 있었다"면서 "해당 검사는 대가성이나 돌침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읍지검 소속 수사관과 또 다른 수사관 등 2명도 조사 중이다.

한편 G산업 대표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325차례에 걸쳐 회삿돈 58억7천7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공무원·감리원·언론인 등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내원침 7281
김정우



"출퇴근길 따라다니며 폭언"

파면 공무원 접근금지 신청

노관규 순천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이 불법 노조를 결성한 이유로 파면·해임된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 2명과 민간인 등 8명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노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심문을 벌인 뒤, 다음달 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 공무원 1천72명 중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공노 탈퇴서를 제출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남해 바다서 6m 고래상어 잡혀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학력 위조 의혹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모(51)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김천 K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씨는 그동안 '수원대 경영대학에 입학해 연구과정을 수료'했고 "76년 서울 대 미대에 합격해 등록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한 학기만 다니고 학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LA 뉴브리지대 순수미술학과에 입학해 96년에 졸업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씨는 비정규 과정인 최고 경영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브리지대는 95년에 설립된 학교로 순수미술 과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학교에 확인해 보면 다 안다"고 해명했다.



일본 뇌염 예방접종

6일 광주시 남구보건소에서 초등학생들이 일본 뇌염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지난달 26일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이후, 남구보건소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초등학생 성폭행 담임

광주 시내버스 추돌사고

승객 27명 중경상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6일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과 급우들의 '왕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성폭력 한 점을 볼 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4월 기간교 사로 근무하던 영광군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혼자 남아있던 A양(당시 12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일 오전 10시57분께 광주시 동구 내남동 S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D운수 151번 시내버스(운전사 김모·55)를 화순~광주 방면으로 달리던 H교통 217번 시외버스(운전사 전모·50)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양쪽 버스 승객 27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류장에 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시외버스 운전사 전씨의 진술로 미뤄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광우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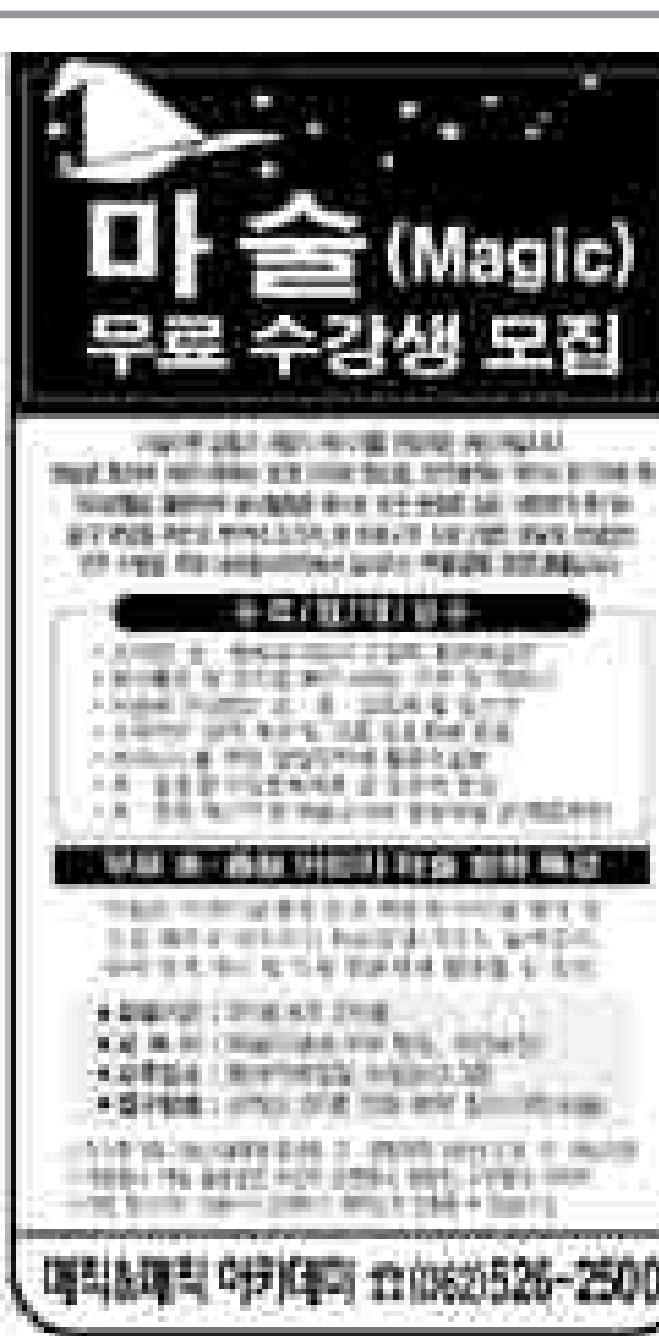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약선물 조주 한파디스크

제작한 제품은 시장판매를 통해 판매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지리산한약방을 찾으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교통사고 감정교육원